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6.15 민족통일대축전 기행

최영남  
(대회협력위원장)

꿈에도 그리던 북녘땅과 북측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 속에 나는 6월 13일 아침 4시경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 7시 30분 경 도착했다.

통일일꾼들과 원로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번 행사에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정부당국의 불허로 못 가게 되어 마음 아팠다.

온정리에 오후 7시 반경에 도착했다. 북측 입국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검사원들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사정이 있겠지요. 조금 기다려봅시다” 하고 말하면서도 속초에서 출국절차를 밟던 번거로움이 떠올라 민족의 슬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온정리 현대식당에서 평양소주로 반주를 곁들이고 나서 안내원의 지시대로 옆 건물 ‘문화관’에 가서 이번 행사의 경과보고 및 일정안내에 이어 다음 날 민속행사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몇 분 만에 현대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컨테이너 숙소(에어컨까지 갖춘 청결한 방)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몇몇 사람이 숙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가 “무산되려는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이미 예약이 차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어떤 방이라도 좋으니 제 날짜에 차질이 없도록만 해달라고 현대 측에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다. 나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뭐요. 관광하며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소. 참고 지냅시다” 하고 거들었다.

14일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밖에 나가 이판암씨와 함께 단전호흡 수련을 한 후 뿌듯한 마음으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장인 ‘김정숙 휴양소’ 앞마당으로 갔다. 북측 사람들은 다 같이 남성은 짙은 감색 바지에 회색과 감색 비슷한 반팔 T셔츠 차림이고, 여성은 하늘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가 평양축전 마크가 달린 모자에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해맑고 밝

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며 우리 일행을 반겼다. 나는 순간 수십 년 헤어졌던 형제자매, 아들딸을 만난 듯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오전 10시 ‘6.15공동선언 발표 2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최식이 남북 해외 대표단 600명과 북녘 주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일기 게양을 시작으로 해외, 북, 남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사들마다 우리가 한겨레임을 강조하면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연설이 끝날 때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개회식 후에 ‘김정숙 휴양소’ 1층에 마련된 북, 남, 해외 사진전을 관람하게 되었다. 나는 전시장에 늦게 들어가 대충 보고 넘어가려는데, 한 북측 여성이 나를 보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이분은 어떤 분이예요?” 하고 물었다. 내가 “그분은 문재룡이란 분인데, 통일사업을 하다가 암에 걸려 지금은 중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행사 현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하자 모두가 “아~ 훌륭한 분이시네요” 하고 감탄했다.

또 한 여성이 “선생님은 어디 소속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저는 사월혁명회 소속으로 왔습니다.” “사월혁명연구소 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아니요. 사월혁명연구소를 98년에 사월혁명회로 확대 개편하고, 지금은 연구소를 부설로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아시지!” 하며 모두 선망의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북측이 마련한 도시락 점심을 휴양소 옆 소나무 숲에서 먹고, 빈 도시락을 쓰레기장으로 버리러 가는데, 북측 젊은이 둘과 남측 교수 몇 분이 술을 마시다가 권해서 나도 합석했다.

북측 젊은이가 술을 따르면서 “선생님은 어느 소속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물어 “사월혁명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젊은이도 또 “사월혁명연구소 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조금 전 여성들에게 한 것과 같은 대답을 했더니, 그 젊은이가 “말씀을 낮추지 않으면 민망해서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 자네 나이가 몇인가?” “제 나이 서른한 살입니다.”

“그럼 쥐띠.” “예,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서른한 살이거든. 그래서 알지.” “그러시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되겠는가?” 하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하며 환한 웃음을 지으며 최OO라는 그 젊은이는 내가 내민 오른손을 두 손으로 부둥켜 잡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내일 금강산에 가지지요?”

“천하의 명산 금강산 구룡폭포를 봐야지! 그럼!”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아버지 내일 금강산에서 만나요. 그런데 사월혁명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가요?” 하고 물었다. 내가 우리 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그렇게 훌륭한 단체입니까?” 하며 감탄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아까 수염이 길고 한복 입은 분의 연설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은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분으로, 광주민중항쟁 당시 투옥되어 형을 살고 나오신 실천이론가요 운동가이시다. 성함은 한상렬 목사이신데 남측의 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으신 분이다.”

그 후에도 몇 마디 말을 더 주고받던 중에 갑자기 최군이 “저기 보श्य. 행사장에 다 모였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남은 사람은 우리들과 쓰레기장 청소하시는 분들뿐이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단오통일민속축전’은 이미 시작되어 동편은 “연대”, 서편은 “연합”으로 갈라져 있었다. “연합”에 속한 두 젊은이는 “내일 또 만납시다” 하고 공손히 인사하고 서편으로 갔다.

민속놀이의 절정은 민속씨름인데 승리한 편은 큰 황소, 진 편은 작은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자기 편으로 오자, 농악이 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춤판이 벌어졌다. 북측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 실력이 뛰어났다. 나는 춤 솜씨가 없어 바라만 보는데, 경쾌한 춤사위와 농악 리듬에 맞춰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돌아가는 흥겨움... 우리만의 독특한 놀이문화에서 짜릿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나 혼자 흥에 겨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새 춤판은 “민족통일” “민족통일” 하며 기차놀이로 바뀌어져 있었다. 나도 앞서사람의 어깨를 잡고 “민족통일”을 외치며 이리저리 따라다니는데 대열이 잠시 주춤했다.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으려니까 누가 뒤에서 등을 두드려 뒤돌아보니 북측의 김영대 민화협 회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남조선. 이제 빨갱이 다 됐던데요. 서울시청 앞이 빨개” 하며 농을 했다. 나는 “머리는 못 보셨군요. 머리는 노란데요” 하며 따라 웃었다. 이날 저녁에는 금강산여관에서 남북, 해외 대표단 600명이 참가하는 합동연회가 있었다.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는 폐막식에 이어 문화예술공연이 있었고, 점심식사 후 4시 반이 지나서야 금강산 길에 올랐다. 그러나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금강문을 지나면서 폭우로 변해 구룡폭포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약속했던 최 군도

만나보지 못하고 서둘러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16일 아침 설봉호를 타고 남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2돌이 되도록 갈수록 험악해져만 가는 내외의 정세, 아직도 이처럼 구차한 과정을 거쳐 금강산을 오가야만 하는 갑갑한 현실, 그리고 뒤에 남겨두고 온 북녘 형제자매들의 체취와 미소, 강렬한 눈빛과 그 외침을 생각하니 3박 4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마음은 갈 때보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사월혁명회보 제65호(2002.7)